



# 반추축산 <反芻畜産, RUMINANT FARMING>

주식회사 선 경  
농산물부 부장 박 병 길

## 반추축산 (反芻畜産, RUMINANT FARMING)

이 땅에서 축산이 이루어져온 역사는 문명과 문화발달의 여명파도 같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인류가 처음 짐승들을 생계수단으로 수렵포획하여 이용하다가 차츰 인지(人智)의 발달로 가축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너무나도 많은 욕심의 결과적인 개량과 개선의 강화로 오늘날의 알뜰한 기계, 고기생산하는 기계로의 가금류와 중소가축류가 태동되었으리라...자연속에서 자연을 먹고 자라 우리 인간들에게 풍요롭고도 신선한 자연의 산물로써의 알, 젓, 고기, 가축과 털을 공급하였던 자연 그대로의 싱그러웠던 모든 것들이 현대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요 꿈의 이상이 되고 말은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들 모두가 깊이 자성(自省)해야 할 일의 하나라고 믿어진다. 경영의 원칙이 누가 뭐래도 “이익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고 보편적은 규모로 보다 많은 투자로 달성한 이익의 규모가 보다 규모가 커진 상태의 보다 합리적인 경영으로 부터 달성한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는 보장은 그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으리라. 한국축산발전의 초기라고 믿어졌던 1960년대부터 우리는 일본의 축산, 섬나라의 축산을 너무나 동경하였었고 급기야는 수만~수십만원의진료비와 약값을 치러가면서도 가축의 안녕과 보다 많은 생산만을 추구한 나머지 잔류하는 항생물질의 덩어리인 오늘날의 축산물들을 우리는 죄의식(?) 하나 느끼지 않고 생산, 유통 및 상식(常食)하고 있다.

그러나 반추라는 축산은, 반추하는 소와 양과 토끼는 아직도 보다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누구나가 믿고 있다. 1983년도 이후 줄곧 계속 되어온 쇠고기 파동, 우유파동과 급기야는 소값파동까지 치달아온 오늘날 한국 축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반추축산을 반추작용에 의하지 않고 배합사료 위주의, 편의위주의 집중축산을 실시한데에서 온 결과라고 한다면 혹자는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섬유질분해 영양분을 주축으로 하고 만족감이 주어졌을 때 타액의 분비를 비롯한 제반 소화활동이 정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반추가축의 생리에 대한 보다 애정어린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 즉 반추축산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

### 1. 반추축산의 당위성 (사육측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경험히 있는 군대생활에서 “전쟁의 승리는 유효적절한 지형지물의 이용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훈련담당 조교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의 축산을 논의하고 더욱이나 반추축산을 토론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당한 논리라고 하겠다. 20여년전만해도 입산금지라는 어마어마한 금지팻말의 위엄(?)에 짓눌려 나무의 남벌아닌 일년초의 채취도 어려웠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풀이 무진장이요 잡목숲(BUSH)이 우거진 우리의 산야를 이용할 대상은 반추가축밖에 더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야초는 모두가 메말랐고 영양가치도 별로 없는 목질화된 섬유다”라는 못난 자책감보다는 우리의 땅이 너무 메말랐기에 자라는 풀조차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간단한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省察)이 있어야 하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에서 반추축산의 밝음과 밝아옴이 내다 보이고 값비싼 배합사료일랑 어린 가축과 생산가축(젖생산 및 새끼생산)에게 결핍영양소 보충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개략적인 계산을 해본다면 1일 성우 1두의 건물가식량을 16kg으로 하고 전체 사육반추가축을 300만 가축단위라고 하였을 경우 1일 소요 사료총량의 건물 소요량은 48,000M/T에 이르고 있다. 왜 수입육우에게 지게로 저다서까지 배합사료를 퍼먹여 난소낭종등의 이유로 인한 번식장애까지 자초해야 하는지 통 의문이 가셔지지 않는다.

생산가축인 낙농의 경우도 배합사료의 절감에 의한 낙농수지의 개선과 소의 경제수명연장에 의한 순이익을 저버리지 않으면 안되는지 알

고 싶어진다.

실제적인 수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1984년도 반추가축용 사료생산실적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더욱 자명해진다. 총사료생산량 5,985천MT 중 양계, 양돈, 낙농 및 특수사료를 제외하고 비육사료라는 명칭으로 하여 17.92%인 1,072천MT을 생산하였으며 위에 언급한 평균단가 160원/kg을 적용하였을 경우 1,720억원이라는 숫자가 제시된다. 물론 30여만두의 젖소(35만 가축단위 정도)용 사료 853천M/T의(단가 180원/kg기준) 1500억원과 합하면 총약 200만MT으로 33%의 전체사료생산량중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려 3,200억원의사료비를 지출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가축단위 당년간 8만원의 사료비를 지불하였으며 1일1가축단위당 평균 200원 전후의 배합사료비를 지불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을가를 다같이 음미해본다면 더욱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 10% 절감의 경우 20만M/T의 물량으로 320억원을 절감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미처 이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버려지는 초자원으로부터 수익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1985년도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풍작과 경기부진에 의한 국제곡물무역의 불활성화로 곡물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근동 지역의 기아, 아사현상을 보노라면 곡물은 역시 큰 힘을 가진 무기의 하나일진데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1978년도와도 같은 곡물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인간들의 식량마저도 1984년도의 경우 48%수준에 그치고 마는 자급도(自給度)이고 보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원을 활용한 식량생산이란 측면에서의 반추축산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에서 얼마만큼의 일반가축을 어떠한 용

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반추가 축이 필요한 것이며 어떤면에서 그 경영기대가 치와 당위성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WAY)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크게 보아서 소, 말, 양 및 토끼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첫째 소의 경우 젖을 생산하는 우유의 경우는 현재의 30여만두에서 기껏 50여만두로 증식되고 나면 한계점(?)에 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제무역상황에서 낙농품의 수입개방을 강요받을 순서가 꼬박꼬박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연간 도입되는 유당과 카제인제품의 경우 연간 10,000M<sup>3</sup>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관련공업제품 생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생산에서 경영이익을 기대하기 곤란한 항목들이다. 앞으로 다가올 양대 OLYMPIC 제전을 이유로 한 낙농품의 수입도 적어도 음용유(FLUID MILK AND ITS DRINK PRODUCTS) 제품을 제외한 기타 유가공품(버터, 치즈등)은 국내생산분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며 “전세계적으로 가장비싼 우유값”이란 요인이 일반 시장론자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또한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기를 생산하는 육용우의 경우는 1980년대 초 국민소득이 U\$2,000을 향해 출달음칠 때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냉동우유의 긴급 도입 또는 번식용 생우(生牛)의 도입은 앞으로는 별로 그 필요성을 예견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유 수급면에서의 필요충분한 여건은 이제 충분히 구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본지역으로 부분적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등육 6개부위의 경우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지만 기타 잡육의 경우 국내판매에서 경영손실이 초래될 것이 문제가 되나 이제 우리나라 한우사

육기술도 상등육 6개부위가 종래의 14%수준에서 16%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아직도 극히 유치한 단계의 국내우육수급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 및 의식의 결여로 성우 1두당 15~18만원의 경영손실예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정부투자 또는 반관반민 형태의 농업조직인 농어촌개발공사의 육류유통사업(포장육 생산)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육류유통사업(도살, 경매 및 포장육생산)이 농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실비위주의 경영체계정립 및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사업의 운용에 대한 혁명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농개공 및 축협이 육류유통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일반시중의 육류유통에 대한 제도적 개선회 즉 육류취급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과감하게 개방하여 비싸고 어설픈 서비스의 현재에서 싸게 팔기 위한 경쟁과 서비스개선을 통한 적자생존의 논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닭고기의 경우는 자유판매가 되지만 쇠고기의 경우 왜 자유판매가 안되는지는 길고도 긴 의문의 사슬이었다고...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도축장운영의 이권화 및 그 융통성의 불합리성이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축장으로써만 존속시키지 말고 육가공회사의 일개 사업의 종류도 포함시켜 육가공과 분리된 도축사업만의 존속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도축, 가공 및 비축과 유통을 동시에 겸비한 형태의 민간경제주도의 쇠고기 유통사업조직의 활성화로 농민에겐 보다 비싸게, 소비자에게는 보다 싸게 쇠고기가 유통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앞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정공장의 쌀도정업과 육가공장의 쇠고기처분업을 동일여건에서 고려했을 때 현재 크게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소값파동과 쇠고기파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양(羊)과 토끼(兔)의 경우 약용 또는 특수용도(즙 또는 앙고라털)로만 사육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둘다가 대규모의 군사(群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야성(野性)이 아직도 잔존한 형태의 축종이며 기업화하기에는 원료 및 제품의 수급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겠다.

## 2. 반추축산의 장래성 (유통측면)

인간이 들짐승을 순화하여 가축화시키고 그 가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를 시발로 하여 오늘날 첨단전자문화시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그리고 가장 유효적절하게 이용된 것이 소이고 보면 우선 우리들 주위의 한우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자원을 이용한 우리들의 것인 한우 생산물을 중심으로 경영을 비롯한 유통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구입선인 일본측으로부터 50만불 상당의 돈육수출용 신용장을 상시보유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는 우리들의 주구입선인 일본측에서 우육이 아닌 생우를 반드시 희망하는 것이 상례의 일이다. 왜그럴까? 일본 사람들의 경우 쇠고기보다는 생우로 사갈 경우 그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냉동육(FROZEN BEEF, 冷凍牛肉) 아닌 냉장육(CHILLED BEEF, 冷蔵牛肉)을 다룰 수 있는 한국의 육가공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며 가장 안타까운 무역측면에서의 아픔의 하나이다. 원래 냉장우육이라야 생산제품의 원질(原質, PRIMITIVE QUALITY OR ORIGIN QUALITY)이 유지될 수가 있으며 유통과정중 고기표면에 살짝 살얼음(3% 정도)만 얼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하나 서구의 경우는 0

~5°C의 저장온도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보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본으로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요 근래에도 일본의 유수한 상사들로부터 한우 생우 또는 한우 우육에 대한 수출가능성 및 그 지속성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 흔한 수출보상금 하나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축산물 수출의 현재 위치이고 보면 수천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축협과 농수산부 측정당국의 경우 왜 증산만 외치는지 통 이해가 안간다는 사람도 종종 만날 수 있다. 기업이 경제활동이고 경영활동이라면 이윤의 극대화가 요체가 경영의 목표일진데 돈 벌리는 축산이면 왜 정부당국에서 증산만 외쳐야 하는가 말이다.

한우의 경우 과거에는 양돈, 양계, 낙농과도 같은 생산자 단체도 미흡하였으며 더욱이나 그 활동이란 미흡하기 이룰데 없었으나 최근 한국 낙농육우협회의 경우 그 활동상과 존재가치는 충분히 객관성을 터득하였으므로 본 협회에서도 각종 관련 자재(종자, 사료의 일부)의 구매활동 뿐만이 아닌 한우와 소를 중심으로 한 생산에서부터 유통의 모든 것까지를 집중적으로 지도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 3. 결 론

축산의 경우 반추축산만큼 부존자원의 활용, 국가 민족을 위한 생산활동측면 및 장래가 보장된 -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국 토가 있을 것이며 국토가 존재할 경우 우리의 자원, 초자원은 영구할 것이므로 - 업종이 없을 것이다. 소를 닦아 소를 배우면서 우리들의 낙후한 농업현실, 경제현실을 개선하는데 반추축산의 가치를 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관민이 합동하여 한우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배워 반추축산의 활성화로 오늘의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